
17/06/18(주) 주일예배 / 제목 :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효도(창 46:28-34) p.75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효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지난 5월 둘째주일은 어머니주일로 보내고 오늘은 6월 셋째주일로서 아버지주일로 보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제사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조상과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효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근본 계명 가운데 하나인 십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는 (**엡 6:1~2**)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까지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못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 27:16**)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잠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을 약속하시면서 까지 효를 명령하시는 것은 효도가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딤후 3:1~2**)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힘써 효도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효도를 살

펴보면서, 참된 효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는 믿음과 성실과 진실의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과 신앙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적으로만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참된 효도를 하여서 효도에서도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요셉의 훌륭한 효도를 살펴보고, 우리도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론 /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1. 요셉은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모시므로 효도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의 중심이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삽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해서 늙은 부모님을 산채로 산에 갔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서로 안 모시겠다고 자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칼부림까지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기도원이나 양로원에 데려다 놓고 몇 년씩 찾아보지 않는 자식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나 해외에 여행 갔다가 부모를 버리고 오는 사건이 일 년에 약 8백건이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요셉이 예언을 한 것처럼 7년 풍년 후에 극심한 흉년이 중동 전 지역에 임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사는 아버지와 형제들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우여곡절 끝에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 아버지의 생존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애굽의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본문 29~3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9~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야곱의 말속에 너무도 구구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여 자신 가까이 살게 하였습니다. 그곳은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무성한 땅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보았습니다. 과거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산업 사회인지라 직업을 따라서 부모 형제가 서로 멀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멀리 살아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요즘 전화기는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살아도 날마다 가까이 사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업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나이가 들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살든지 가까이 사는 것도 좋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7년을 곁에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즉시 아버지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 곁으로 가서 아버지의 노년을 지켜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부모님을 가능하면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최상의 효도이고, 부득이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찾아뵙는 것, 손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 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도일 것입니다.

2. 요셉은 부모를 물질로 봉양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을 위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물질로 잘 봉양했습니다. (창 47:11~12)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봉양” 이란 단어는 예전성경에는 “공궤” 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부양” 이란 단어로 썼습니다. “봉양이나 공궤, 부양” 이라는 말은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채워드리는 것” 을 말합니다. 즉,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평균수명이 높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1년 5월에 발표한 세계보건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76세이고, 여성은 8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균수명은 점

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노년의 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 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60세에 은퇴하면 최소 20년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노부모들의 복지문제입니다. 돌보아야 하는 어르신들의 수는 많아지고, 돌봄의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돌볼 자식들은 한 두 명이다 보니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한 자녀 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장성한 후에는 양쪽 집안의 부모들을 다 모셔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돌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딤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악이겠습니까?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행상을 했고, 어머니는 이런 저런 허드레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카네기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카네기는 22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해 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해 드리기 전에는 결코 결혼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52세에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혹시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게 될까봐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일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 말고 요셉처럼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3. 요셉은 부모의 뜻을 따라 형제들과 우애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간 동생을 죽이려하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고통의 세월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 50:16~17)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말하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 50:19-21)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돌봐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림 없이 너희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잘 해 드려도 형제간에 불화 불목 하면 효도가 아닙니다. (시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제간에 화목하고 있습니까? 형제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제간에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유산문제로, 물질문제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겠습니까? 형제간에 불화는 엄청난 불효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은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잘 지내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화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라는 가족 구성 자체에도 불화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있었던 가정이었고,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 사랑과 효도의 모습은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처럼 형제간에 우애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효도 사상은 단순한 사람의 사상이요, 윤리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로 믿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요셉과 같이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손 천대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요셉과 같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축복 받는 성도가 다 됩시다.

요약정리 /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1. 요셉은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모시므로 효도했습니다.
2. 요셉은 부모를 물질로 봉양함으로 효도했습니다.
3. 요셉은 부모의 뜻을 따라 형제들과 우애함으로 효도했습니다.